

협회, 2011 안전교육 컨퍼런스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는 9월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11년 안전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주요 임직원과 기업체 안전교육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체 안전교육 실무자간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함께 최근 변화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전연극'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최근의 안전교육은 참여·학습형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 속에 협회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나, 이에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지회, 안심일터 만들기 기원 마라톤대회 참가

기철원DMZ국제평화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전제성),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지회장 채수현),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최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사무국장 윤동진) 등 경기북부지역의 안전기관 관계자들이 산재 예방 분위기 확산 취지에서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8회 철원DMZ국제 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마라톤 행사에서는 참가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다짐하는 '구호제창'의 시간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별도로 마련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예방도 마라톤과 같이 힘들고 피나는 노력이 따르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것을 이겨냈을 때는 무재해의 월계관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지회, 복지원과 고아원 찾아 봉사활동 펼쳐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지회장 김서현)가 지난 9월 9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복지원 및 고아원 4곳에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지회는 매일 전 직원의 급여 중 일정액을 모아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복지원과 고아원을 방문, 물품을 기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지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매우 많다"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해나가 지역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지회, 추석 앞두고 소화성가정 방문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회(지회장 김종원)가 소화성 가정을 방문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화성가정(원장 박원순)에는 30여명의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정서치료와 직업교육 등의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소화성가정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도움을 받아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기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원 지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틈틈이 화목작업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